



“보초 설 때 온차 한  
잔은...”

통합총회 여전도연합회 회장 김순미 장로(오른쪽)가 '사랑의 온차' 전달 감사예배에서 온차 한 박사를 전달하고 있다. © MEAK 제공

##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에 대한 법적 보장 필요해”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2017  
세미나 ‘기독교학교 대토론회’ 열려

한 국 에 서  
기독교사립학  
교가 존속할  
수 있을까? 문  
재인 정부 출  
범 후 김상곤  
장관 중심으  
로 교육부가  
새로운 정책  
을 추진하고  
있 는 가운  
데, 기  
독교학교정  
상화추진위  
원회가 7일  
장신대에서  
‘기독교학  
교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장신대 박상진 교수

교육현실과 정책을 비평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박 교수는 “교육 영역에서 하나  
님 나라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현 정  
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비평해야 한다”면서 ▶모든 인  
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조  
간-능력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인  
간의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경은  
교육 주체가 부모임을 가르친다 ▶인간  
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고, 그 의지  
를 사용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게 된  
다 ▶종교교육, 특히 기독교교육이 실현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제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독교적 비평  
박 교수는 현 정부에 대해 “교육이 국  
가 책임이란 인식을 지니고 교육 제반 과  
제들을 국가가 주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지만, 국  
가가 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교육의 국  
가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했다. 그는 “국가가 교육을 지원  
하고 가정이나 부모 조건 관계없이 기본  
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는 것은 필요하지만, 교육의 주체가 되어  
교육 전반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그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공약  
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그나마 제시되  
고 있는 것도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이  
나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 사립

학교를 공립화 하는 방안 등”이라 지적하  
고, “(현 정부가) 사립학교가 존재할 가치  
가 있다고 여기는 것인지가 궁금하다”면  
서 “한 국가의 교육은 공공립학교와 사  
립학교가 공존하는 조화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전 제시  
가 부족하다”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 “특  
목고나 자사고 등을 원래 목적대로 다양  
성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  
고, 단일성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은 다양  
성 교육의 약화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  
다”고 했다.

박 교수는 새 정부가 “학원업체의 영  
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고, 학생들  
의 교육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교육비  
경감정책, 학원휴일휴무제 등을 추진해야  
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확대고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  
교육에 대해서, 그는 “사립학교가 건학이  
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보되어  
야 하고, 사립학교 교육과정은 종교적 접  
근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성과  
융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현 정부  
가 종교교육 및 종교계 사립학교 자율성  
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  
려했기도 했다.

◆문제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독교사립학교의 대응  
박상진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정  
체성이 드러난 첫 번째 이슈로 소위 자사  
고 폐지 문제를 꼽았다. 그는 자사고 문  
제의 핵심에 대해 “일반고와 자사고의 대  
립문제가 아니고 한국에서 어떻게 사립학  
교가 가능했는가의 문제”라며 “일반고  
는 자사고든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일  
반고 사립학교와 자율형 사립학교, 특히

일반고 기독교학교와 자사고 기독교학교  
가 더불어 한국에서 사립학교 회복에 관  
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또 박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립학교의 위축”이  
라 지적하고, “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있  
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데, 한국교  
회가 이를 성사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임으  
로써 우리나라에 기독교학교가 건설하게  
존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더  
불어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대로 종교교  
육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존립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말  
하고, “한국교회가 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종교계 사립학교는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  
것이 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이  
야기 했다.

나아가 박 교수는 현 임시위주 교육의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교회 내에서부  
터 팽배해 있는 임시위주의 왜곡된 교육  
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러한 여러가지 것들을 잘 행하기 위해  
“기독교계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형  
태의 한국교육의 중장기적 미래를 모색하  
고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  
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문제인 정부  
가 교육 영역에서 성공하는 정부가 되도  
록 돕기 위해서, 한국교회와 기독교계가  
건강한 비평자, 예언자의 역할을 잘 감당  
해야 한다”고 다시금 당부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박 교수의 사회로  
제철웅 교수(한양대, 사회정책포럼)와 송  
인수 대표(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진우  
대표(좋은교사운동), 김철경 교장(대광고),  
정기원 교장(밀알두레학교) 등이 토론자  
로 나서서 함께 대화했다.

조은식 기자

## “60만 국군장병에게 더 따뜻한 겨울을”

7일 MEAK 세미나실서 사랑  
의온차 전달 예배

사랑의 온차 전달 감사예배가 12월 7  
일 2시 군선교연합회 세미나실에서 열렸  
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온차는 원두커피  
와 핫초코가 담겨있으며 서울과 경기지역  
각 부대별로 2BOX씩 전달된다.

감사예배 설교자로 나선 문효빈 군종  
목사(1군단사령부 군종참모)는 “이 사랑  
의온차가 전달되고 나면 중대장이 병사  
와 상담할 때, 당직자가 경계근무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사랑의 온차가 손에  
있다”며 “이 차 한잔을 통해 복음이 전  
달되기 때문에 군복음화의 소중한 사업  
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통합총회 여전도연합회 회장 김순미 장  
로는 “청년선교의 지름길인 군선교를 위  
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다”면서 “사랑의온차가 전달  
되는 곳마다 예수그리스도의 따뜻한 사  
랑이 전달되고 더 많은 영적 열매와 구원  
의 열매가 맺히길 바란다”고 격려인사를  
전했다.

권순원 군종목사(육군 제6포병여단)는  
“사랑의온차는 장병들 뿐만 아니라 부대  
의 간부들도 좋아한다”며 “보이지 않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군인교회와 군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후

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고 답했다.  
한편 사랑의 온차 보내기 사업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정성이 담긴 성탄절 선  
물을 전달,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한국  
교회 군선교의 대표적인 동계 프로그램이  
다.

올해는 육해공군-해병대 600여 대대급  
부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온차 보내기 사  
역이 진행되고 있다. 준비된 물품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후원처의 일정  
대로 전달되고 있다.

군선교연합회 중앙본부는 경기도권 부  
대를 대상으로 집중 전달하고 전국지회  
는 각 지역에, 군종목사파송 10개 교단은  
자체 전달 계획에 의거해 실시하게 된다.

군선교연합회에서는 각 교단과 지회,  
개인을 중심으로 사랑의 온차 보내기 사  
역 후원금을 모금, 더 많은 성도들이 장  
병들에 대한 사랑을 보내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사랑의 온차가 아닌 사랑의 선물을 준  
비하고 있는 교단과 지회도 있다. 사랑의  
선물의 경우 지역 내 교회에서 통일된 사  
랑의 선물대에 선물(동계물품, 간식 등)  
을 편지와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해 각 부대  
로 보내게 된다.

홍은혜 기자

## 동반연, 여가부 동성애 옹호 성(gender)정책 규탄 국민대회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전  
국연합회’(이하 동반연)가 7일 오전 여성  
가족부 후문에서 “동성애를 합법화(법제  
화)하려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을  
절대 반대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여성  
가족부 동성애 옹호 성(gender)정책 규탄  
국민대회’를 이어갔다.

동반연은 “지금 일부 여성단체들은 개  
헌을 통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  
기 위해 헌법 헌법에서 양성평등을 삭제  
하고, 개정헌법에 성(gender)평등 항목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특히 “여성  
가족부가 헌법과 법률도 바뀌기 전에 성  
(gender)평등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연은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  
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성(gender)관련  
정책을 준비 중인 여성가족부가 기본계획  
을 양성평등이 아닌 성(gender)평등을 기  
반하여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대  
한민국의 헌법과 법은 양성평등을 기반하

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를 통한 정부정책  
은 성(gender)평등을 기반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위헌, 위법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 주장했다.

동반연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을 통해 양성평등위원회로 → 성  
(gender)평등위원회로 바꾸려는 시도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밝히고,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남녀 평등을 의미  
하지만 성(gender)평등은 사회적 성인 동  
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를 포  
함한 평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반연은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모  
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성(gender)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기  
반으로 작성하기를 바라고, 아울러 여성가  
족부는 앞으로 추진 중인 ‘성(gender)차별  
금지법’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  
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나래 기자

## WCC, 서울에서 ‘디아코니아협의회’ 진행

세계교회협의회(WCC)총무 올라프 뮐세 트베  
이트, WCC)가 2017년 12월 7일부터 11일  
까지 서울에서 디아코니아협의회를 진행  
한다.

이번 협의회는 WCC 동북아시아 회  
원교회를 비롯해 아시아기독교협의회  
(CCA), 세계선교협의회(CWM), 세계교회  
구조연맹(ACT Alliance), 세계루터교연맹  
(LWF) 등의 대표자 25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총무 이흥정 목사) 국제위원회  
(위원장 손달익 목사)가 실무를 맡았고,  
예장(통합), 감리교, 기장, 성공회, NCCK  
대표 등 다수가 참여했다.

NCCK는 이번 회의 목적에 대해 “예규  
메니칼 디아코니아(봉사)에 관한 연구문

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동의 실천을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서”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검토된 문서는 내  
년 6월 WCC 중앙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7일 오전 9시 30분 기독교회관  
에서 개회예배를 드렸으며, 8일에는 한신대  
학교와 서울 동북 4구(노원구, 성북구, 강  
북구, 도봉구)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와 “안산다문화선교센터(감  
리교)” 등에서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갖  
는다.

아울러 10일에는 통합, 기장, 성공회에  
속한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디아코  
니아 사역을 경험한다.

홍은혜 기자



## 설교

## 귀중한 신앙의 선배님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3)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목사

“한국의  
예레미야 김치  
선 목사님”의  
삶과 죽음을  
살펴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시절에 저에게 깊은 신앙의 감화를 준 신앙의 선배님은 김치선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시절에 김치선 목사님이 서무하시던 서울 창동교회(후에 대창교회와 한양교회로 개명)에 다니며 김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신앙의 감화를 받았습니다. 김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회개를 촉구하며 우시었고 이만 팔천여 동네마다 우물을 파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새벽기도회 때마다 “성령이여 감동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용하고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합소서”를 거듭, 거듭 부르시면서 회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곤 했습니다. 사할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김치선 목사님도 집회 때마다 “성령이여 감동하사...” 찬송을 부르시곤 했다고 합니다. 저는 김치선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와 산상기도회에 좇아 다니며 은혜를 사모하곤 했는데 삼각산, 관악산, 대구의 주암산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회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시던 김치선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은 저에게 평생 깊고 오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김치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치선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기술해 봅시다. 김치선 목사님은 한국의 제미야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교회와 민족의 죄에 대하여 뜨겁게 회개하며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던 인물입니다. 1950년대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총신대학교의 전신인 장로회신학대학에서 구약학 교수로 구약을 가르쳤고 대한신학교(현재 안양대학교)를 설립하여 신학생들을 육성하여 전국 2만 8천여 동리에 가서 우물을 파라고 외쳤던 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일 때 우물을 파기 위해 왕십리에 들만 가서 토요일과 주일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결국 천막을 사다가 천막을 치고 “한양제일교회”라는 가판을 부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60여명 어른들 40여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

어서도 개척목회를 계속했습니다. 김치선 목사님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김치선 목사님은 1899년 함경도 흥남을 서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당시 그의 집안이 유복하여 얼마 더 버날라 다니며 한문을 배웠으며 서당의 훈장이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영수가 되었던 김응보의 영향으로 독학 신앙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집안이 몰락하여 학원집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을 때 김응보 영수가 부친을 설득하여 김치선을 함흥에 파송된 카나다 선교사인 영재영(Luther Liger Young) 선교사에게 소개시켜 선교사의 양아들로 삼게 하였습니다. 김치선은 영재영 선교사가 설립한 영성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학교의 대표로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간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가 형무소에서 보낸 1년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목회자로서 자신의 생계를 불태우겠다고 결심하였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옥살이를 치른 후에 영성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중에 영재영 선교사가 시무하던 신창리 교회에 호재가 발생하였는데 새벽에 홀로 드리고 있던 김치선은 타도르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실신한 양아버지인 영재영 선교사를 구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재영 선교사는 김치선을 자신의 친자식같이 이 사랑하며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김치선은 1922년 영성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들어가 1927년 3월에 졸업한 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재 선교사가 1928년 일본으로 가게 되자 김치선도 양친교회를 중퇴하고 그해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신중양양신학교를 개척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김치선은 30세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영재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와가야마에 조그만 개척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영재 선교사는 그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어 1933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1935년 달라스 신학교에서 소 모세오경의 영감론을 연구하고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조선으로 귀국하였으나 사역지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영재 선교사의 초청으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신중양양교회를 설립하여 목회를 하였고, 1939년에는 동경 신중양양교회에서 사역하였습니다. 1944년에 귀국하여 남대문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으나 다시 일본이 미국의 공격을 받아 패배

절어지던 상황에서 김치선 목사님은 이제부터는 살든지 죽든지 조국에 돌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과 민족의 해방을 조국에서 맞아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귀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제의 심한 감시 하에서도 새벽기도를 계속하면서 민족을 위하여 한없이 열었습다.

둘째로, 김치전 목사님은 300만 구령온동을 일으켰습니다. 김치전 목사님은 해방 후 한국을 진정한 제2차 나라로 건설하려면 이 백성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3천만 민족의 십 분의 일인 300만 명이 하나님을 믿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는 우리가 먼저 “남한의 2만 8천여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야만 이 민족의 살 길이다”라고 부르짖었고 우물

을 하기 위해서는 300명의 기도는 기도특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300만 구령운동”의 시발이며 그는 이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3백만 부흥전도회”를 결성하였고 1946년에는 회장이 취임하여 70인의 전도 목사를 회장에 파송하는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유명한 부흥강사였던 이성봉 목사님, 박재봉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등도 전도팀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1850-59년의 정교 기도회와 평양대부흥운동사의 선교사들의 정교 기도회를 이어받아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정교 기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한국 교회의 부흥은 오직 성령을 불러야 하고 참된 부흥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치선 목사님은 기도문 300용사를 선  
발하여 민족복음화를 이루면서 해방된  
지국을 민주국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  
독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가 필  
요하다고 역설하였고, 그러한 소원이 결  
실을 맺어 1948년 8월에 남대문 교회에  
서 열린 신학교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학  
교 설립목적은 복제에 내러와 주경 약독  
해야 할 사람들을 민족복음화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49년 1월에  
교사를 서소문로로 이전하면서 교장직을  
맡고 1950년 1월에 “대한신학교”로 개명  
하였고 1951년에는 장로회총회신학교 교  
육학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남대  
문 교회에서 시무하다 6.25사변 이후에  
사회하였는데, 1954년에 남창동에 “창동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관악산에  
“별원 기도원”을 세웠습니다.

셋째로, 김치선 목사님은 한국의 예레미야로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김치선 목사님은 강의 시간에도 늘 눈물로 강의

하라고 한국교회회의 부흥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치선 목사님은 해방된 나라에서 우리 민족의 고난의 원인을 하나니 앞에 우리의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여 회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김치선 목사님은 이스라엘 백성간의 골육상잔을 우상숭배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한국의 6.25 민족상잔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자 했습니다. 김치선 목사님은 “예레미야 강해”에서 예레미야를 “유명한 선지자로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소소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6.25 동안 후에 되어진 것을 보면 자연과 시가지뿐만 아니라 인생까지 멸망케 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며 이것이 죄악의 경고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치선 목사님은 한 설교 가운데서 회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는 요구뿐인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것을 알아야 한다. 과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있을 뿐인데, 이것은 다만 우리의 믿음인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만 의지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성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주님께 직고하자. 이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다. 회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하나님의 자비” 아모스 9:11-15, 1962.6.)

김치선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자신의 신  
사람배의 경력을 인정하며 그 죄의 용서  
를 구했습니다. 1952년에 대구 중앙교회  
에서 했던 “전쟁 중의 부흥”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을 지  
적하면서 자신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했  
습니다. “오날 여러분 나뉘어 더러운 일  
분 우상에게 절한단 자이옵디나. 그리고  
엇지 이 나라가 부흥할 수 있겠나이가  
우리는 몬지 이 더러운 것 불어 다 제하  
여 버려야 하겡나이다.” 그는 또한 1961년  
에 했던 한 설교에서도 자신의 신사람배  
의 죄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  
것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생각지 않고 미소기바라이  
에게 참배할 때 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  
셨겠나이가? 생각할 때 참 마음이 괴롭  
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불효 막대한 죄인  
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불효의 죄는

태산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나는 아브라  
하나님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나를 위하  
여 십자가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받  
으신 주님의 마음을 알뜨게 한 다시 죽  
어도 맞닿아 이 죄인을 사할하시니 그 감  
사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김치전  
목사님은 자신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  
지 못한 죄를 회개했고, 자신이 사사로서  
가정을 다스리는 파수꾼을 사명을 다하  
지 못한 죄를 회개했으며, 자신이 부모에  
게 효도하지 못한 것도 회개했습니다. 이  
와 같이 김치전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에  
게 회개하기 전에 자신이 잘못된 것이라  
고 생각되는 것을 설교시간에 공개적으  
로 말하면서 자신의 죄부터 철저하게 회  
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불리던 김치전 목사님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가장 철저하게 회개했고 한국교회와 사회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회개를 촉구하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6.25 이후의 민족의 위기를 바라보며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 민족과 교회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까. 특히 그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와 예레미야서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면서, 이러한 죄를 회개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부흥을 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민족을 위하여는 눈물로 기도하며 민족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였고 실질적으로 부흥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일생을 바쳤습니다.

“약함과 착함과 겸손의 목회자 한경직 목사님”의 삶과 죽음을 살펴봅니다

목회자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이 땅의 역사 안에서 만들어지고 생각됩니다. 즉, 수많은 고난과 약함과 실패와 절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그리고 한 인간의 진솔한 참회와 자기 부정과 헌신의 과정 안에서 하나의 목회자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제논도 지식도 학문도 아닙니다. 목회자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리고 자기 부정과 헌신의 결단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인간이요 하나의 인격입니다. 인간 됨과 인격 됨이 없는 목회자는 참된 목회자는 아닙니다. 종교인이냐 여권자가냐 될 수 있고 사업가냐 연출자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목회자는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만인의 존경을 받던 20세기 한  
국의 위대한 목회자요 설교자인 한경직

목사님의 인간의 면모와 목회자의 면모를 살펴봅시다. 한경직은 1902년 평안남도 평원군 고곡면 건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헌신은 22세의 청년 한경직이 1924년 여름 황해도 구미포 해변을 혼자 걷고 있을 때 주어진듯, 철저한 항복과 제 헌신은 27세의 청년 한경직이 1929년 미국 프린스턴에서 패혈핵 3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주어진지만, 실제로 목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1941년 후 한경직이 31세 되던 1933년 신구주 제2교회의 전도사로 부임 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문에 대한 꿈을 품기도 했었고 고수에 대한 꿈을 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좌절되었습니다. 후에 한경직 목사님은 이것을 “좋은 기회”였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좌절되고 있을 무렵 한경직은 신구주 제2교회의 감리법 장로로부터 교역자 청빙을 받았습니다. 결국 한경직은 한 평생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난과 좌절 중에 있던 수 많은 평민들과 청년들의 함과 소망이 되고자 하는 열심으로 목회의 길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신익주 제2교회 부임 후 첫 예배의 소감을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 때 저는 평민인 한경직으로 가난한 부인 중에 끼어 있다는 행복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경직 전도사는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고 설교하고 봉사하며 목회에 전념했습니다. 한경직은 행복했습니다. 1년 후 의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부임 후 2년 만에 건평 365평의 2층 붉은 벽돌 교회당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와일 양로원도 세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청년들이 모여들어 신도 수는 300에서 1,000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경직 목사님은 1937년경부터 일본의 신사참배와 동양방음 강요에 시달리다가 1938년에는 총회 총대로 평양 서문밖 교회에서 열린 제27회 장로회 총회에 참석하여 신사참배 결의에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는 교회 차원의 신사참배나 동양방음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한경직 목사님은 오산학교 출신이라는 것과 미국 유학생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일본 경찰에 의해 1942년 신익주 제2교회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비롯한 한경직 목사님은 1945년까지 보린원 원장으로 고아와 노인들을 돌보다가 1945년 10월 월남하여 그 해 12월 2일 월남 피난민들과 함께 서울 저동에서 1946년 11월 영락교회로 교회의 이름을 바꾸고 영락교회의 목



# My KIDS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김혜자 월드비전 헌신봉사  
**봉어행 지수**



이름: Ekwere  
국적: 케냐

①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② 모바일 앱 mykids.vv.or.kr로 접속해주세요.

mykids.vv.or.kr

30초만 푸드를 식사!

- 1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아동 정보가 담긴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2 이왕이 전지를 교육하여 선물을 보거나 아왕이 사는 지역을 방문하여 아왕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전 1회 아동에게만 보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통한 혜택

- 1 월 3만원의 후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왕이 영양, 보건, 교육, 교육 및 생활에 혜택을 받습니다.
- 2 아왕후원은 한 아이의 성공을 넘어 꿈을 지우고 한 마을의 희망이 됩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http://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회자로 아니 한국교회의 목자로 한 평생 바치다가 2000년 4월 19일 고난 절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98세를 사시고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약함과 착함과 겸손의 목회자 한경직 목사님의 인간의 면모와 목회자의 면모를 살펴봅시다.

첫째로, 인간 한경직은 “고난”과 “약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한 평생 수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절감한 분이었고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체험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절망했으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를 진정한 목회자로 만든 비결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경직이 17세 되던 1919년 평양 영성소학교 교사로 봉직하고 있던 때 일본 고등계 형사들의 혹독한 고문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문당한 후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비관하기도 했습니다. 한경직이 27세 되던 1929년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때 폐결핵 3기라는 진단을 받고 그는 또 한번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절감했습니다. 진학은 물론 인생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절망감과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도 건강도 아무 것도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는 절망감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한경직이 1932년 귀국 후 모든 좌절을 딛고 1933년부터 목회의 길로 매진하기로 헌신했으나 1938년 일제의 강요에 무릎을 꿇는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일본 경찰의 강요에 의해 1942년 신의주 제2교회를 사임하고 3년 동안 보린원 원장으로 봉사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얼마 안되어 평북지사를 맡았던 일본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일본인들이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목사가 치안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일본인의 딱한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결국 일본인의 요청을 수락하고 평안북도 치안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경직 목사님은 누구의 요청도 거절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 또는 “선량한” 사람으로 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최창근 장로가 한경직 목사님의 유일한 약점은 어떤 사람의 요청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

이와 같은 “약점”을 지니고 살게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군사독재정권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시위나 서명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군사독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그의 “약함”이라고 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의 평소의 나라 사랑과 반공주의와 복음전파의 소신과 입장에서 비롯한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2년 동안 노환으로 많은 고난과 약함을 체험했습니다. 아니 한 평생 꽤 하나를 도려낸 장애인으로 약하게 살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어느 대답에서 괴로운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일생을 연약한 몸으로 살아온 것이 제일 괴로웠지요.” 라고 대답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2년 동안 두 다리를 수술하는 고통도 겪었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답답함도 당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6개월 동안은 가래가 너무 끓어서 목에 구멍을 뚫고 지내는 극심한 괴로움도 겪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저의 손을 붙잡고 “늙는 것이 재미 없어.” 라고 그의 노약의 서글픈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한 평생 약하고 아프게 살았습니다. 그는 몸뿐 아니라 인간 자체는 약한 존재인 것을 실감하고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하면서 “우리 사람은 약합니다.” “우리는 파산된 존재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고난과 약함의 사람으로 살다가 고난과 약함의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평안하게 죽는 것이 복임 수 있으나 진정한 목자와 제사장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 한경직에게서 “약한” 사람을 봅니다. 인간 한경직은 “고난”과 “약함”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인간 한경직은 “회개”와 “참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죄를 고백하는 “회개”와 “참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죄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짊어지고 고백하는 “회개”와 “참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제사장처럼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회개”와 “참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경직이 27세 되던 1929년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할 준

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때 폐결핵 3기라는 진단을 받고 그는 슬픔과 절망 중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처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월남 후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삶을 살면서 “자복”과 “회개”의 메시지를 자주 전했습니다. 1955년 11월 6일에 행한 “사죄의 축복”이란 제목의 설교에서는 사죄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것은 안수기도를 받으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선사업이나 도덕적 생활을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역설했습니다. 1956년 1월 8일에 행한 “회개와 보상”이란 제목의 설교에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 교회, 우리 전 민족이 새 해에 축복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회개의 좁은 길입니다. 참 회개는 후회만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 때마다 자기는 부족한 죄인임을 거듭해서 고백했습니다.

1973년 1월 2일 한경직 목사님이 원로목사로 추대되던 날 백낙준 박사, 홍현설 박사 등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사귀었습니다. “은퇴하는 저에게 분에 넘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락교회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 앞에 사과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지 못하였고, [양] 폐를 두고 도망쳤고 그분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은 1992년 템플턴상 수상을 축하하는 모임에서였습니다. 1992년 6월 18일 오후 3시 여의도 63빌딩에서 축하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그는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해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모습에 충격과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육한흠 목사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에 대해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은 템플턴상 수상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나는 신사 참배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인사말을 할 때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선미 양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사참배 했던 죄인이라는 목사님의 고백 속에서 전 그만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시대는 의인은 많지만 죄인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죄인이 보고 싶은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 한경직에게서 죄인을 봅니다. 인간 한경직은 죄를 고백하는 “회개”와 “참회”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인간 한경직은 “기도”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한 평생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기도”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울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과 민족의 고난과 약함과 아픔과 절망 중에서 드러진 진솔하고 처절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깊은 기도에 빠지게 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1924년 여름 황해도 구미포 해변을 혼자 걷고 있는데 어디선 가 세미하고 강권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길은 이것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몸 바쳐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이 백성이 올바른 사람들이 되어야 나라도 바르게 된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백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한경직은 하나님과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가 되기 위해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3년간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때 한경직은 기도와 묵상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근처에 무명 병사들의 묘지가 있었는데 소나무들이 울창한 조용한 묘지에서 한경직은 많은 시간을 기도와 묵상으로 보냈습니다. 한경직이 보다 처절한 기도에 빠진 것은 그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던 때인 1929년 폐결핵 3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 때 한경직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처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단 2,3년만이라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겨레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4개월이 지나서 건강이 호전되었고 2년 후에는 병원에서 완전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와 교수들이 예일 대학에 진학하기를 권했으나 한경직은 그것을 포기하고 나라와 겨레를 섬기기 위해 미국을 떠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서약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경직 목사의 비움과 버림과 청빈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런 비움의 삶은 그의 처절한 기도로부터 비롯한 것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1942년 신의주 제2교

회에서 추방당한 후 1945년까지 보린원 원장으로 지내면서 한 편으로는 고아와 노인들을 돌보고 한 편으로는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는 북쪽을 바라보며 신의주 제2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역시 그 언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환상이 보였습니다. 언덕 밑으로 삼천리 강산이 한눈에 보이는데 흰 돌로 지은 교회당이 그 강산을 꼭 메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는 소스라치며 눈을 떴습니다. 순간적으로 “일본은 틀림없이 망하고 조국은 분명히 독립한다 독립된 조국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마음을 스쳤습니다. 이 기도와 환상은 후에 흰 돌로 지어진 영락교회 교회당 건축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한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함께 민족의 비극을 가슴 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남한산성에서의 마지막 26년 동안의 삶도 기도와 눈물과 묵상으로 이어진 삶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30여분 동안 산책과 제조를 한 다음 5시 30분부터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가졌고 때때로 언덕 길을 올라가 조그만 바위 돌 위에 앉아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본의 복음화와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남한산성에서 저의 손을 꼭 쥐고 순교하신 저의 아버지(김관주 목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는 언제나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시곤 했습니다. 눈물이 매마른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 한경직에게서 눈물의 사람을 봅니다.

넷째로, 목회자 한경직은 “설교”와 “전도”를 쉬지 않은 복음전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설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한

평생 설교하며 복음을 전파한 말씀과 복음의 목회자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회고한 일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중요한 것은 설교, 심방, 교회운영이다. 설교를 통해 전도하고 양을 먹이어야 한다.” 그리고 설교의 목적은 전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꼭 몇 마디라도 전도 설교를 해서 그들을 건져내야 한다.”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를 시작할 때 전도를 교회의 첫째 사명으로 삼으며 교회 이들을 아예 베다니 전도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목회 시초부터 설교를 통한 복음전파에 주력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복음 전파와 함께 교육과 봉사에 주력한 것은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확신에서 비롯했고 둘째는 그의 성서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교회관에서 비롯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면서도 시대적인 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한 평생을 바쳤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설정한 영락교회 네 가지 지도방침 중 첫째가 “성서중심적 복음신앙”이었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이라 함은 성경중심,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와 부활 중심의 신앙을 의미한다. 그리고 복음주의라 함은 소위 자유주의 노선과는 대립되는 말이다. 독선적 근본주의적 보수정통의 유혹에 기울이지도 안하고 오만한 자유주의의 흐름에도 한눈 팔지 않는다.”

이제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인 설교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마치 연약한 체구의 알브로스의 설교가 아거스틴에게 놀라운 영적 감화를 미쳤던 것처럼 병약해 보이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가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감화를 끼쳤는데 그 비결은 그의 설교에 “영적 카리스마”가 있었고 그의 설교에 “대중성” “신행 일치” “인간사랑” “실존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편집장 장세규	교계편집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 똑똑한 금융

##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며 상황적인데 평이하고 경건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강신명 목사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가 그의 인격과 경건성에서 흘러나오는 설교이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성 박사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평범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찡그러주는 설교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진경 목사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조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항록 목사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가 친근감과 감동이 있는 것은 그의 설교가 말이 설교하는 설교가 아니고 겸손과 기도와 인격이 설교하는 설교이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가 복음적이기보다는 윤리적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철학자요 윤리학자인 손봉호 교수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에서 매우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윤리적 설교가 매우 드물고, 윤리적인 문제를 다룰 때라도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일부 혹은 그 당연한 결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신앙만 강조하면 그만큼 윤리를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던 것 같다.”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 중심적인 목회자였지만 그의 설교와 목회는 언제나 전도 지향적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다룰 때라도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세계복음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기 세력화장과 자기 왕국건설에 여념이 없는 경쟁시대에 오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일념에서 오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친 복음전파의 목회자를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에게서 발견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생애를 건 복음 전파의 목회자였습니다.

다섯째로, 목회자 한경직은 돌봄을 쉬지 않는 “사랑”과 “봉사”의 목회자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봉사는 복음의 생활화요 신학의 실천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약한 자 그리고 원수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라고 강조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33년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는 1936년경 고아원을 설립하여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1939년에는 남 신의주에 땅을 얻어 벼돌집을 신축하여 고

아들과 노인들이 함께 기거할 수 있는 공동체적 복지 시설인 “보린원”을 만들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1945년 10월 월남 후 12월 2일 서울 저동에 베다니 전도교회를 설립하고 월남하는 피난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동시에 양식과 거처할 숙소를 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1946년 11월 베다니 전도교회는 영락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영락교회는 피난민들과 실향민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새로운 삶의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3대 목표 중의 하나를 봉사로 정하고 봉사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창립 1주년을 맞은 1946년 12월 1일 주일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민중들을 인도하고 돌보는 사회 봉사를임을 밝혔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미 그 해(1946년) 3월 16일 주일 “상부상조의 정신”이란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가난한자, 병든 자, 나그네 등을 돕는 상부상조임을 강조하며 호소했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봉사의 목회는 그의 성서적인 교회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교제와 봉사를 항상 강조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50년 6월 서울을 떠나 피난 길을 가면서도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전에서는 “기독교 구국회”를 조직하여 피난민을 구호하고 국군을 위문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을 돕고자 부산에 와 있던 밥 피얼스 박사와 함께 기도회를 개최하고 피난민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피얼스 박사로 하여금 미국에 돌아가서 “월드 비전”을 창시하여 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의 피난민들을 돕게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후에 가난하고 병든고 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영락보린원을 비롯해서 모자원, 경로원, 노인요양소, 농아원, 장애아원, 어린이집, 재가노인복지 상담소 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90년 1월 17일부터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폭 넓게 펴나갔습니다. 영락교회의 이창로 장로는 목회자 한경직의 특징중의 하나는 “궁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목회자 한경직은 궁핍의 사람, 사랑의 사람, 봉사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래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프랜시스요 한국의 슈바이처요 한국의 테레사로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봉사는 이기적인 봉사와 과시적인 봉사와 아니었습니다. 이타적인 봉사였고 드러내지 않는 숨은 봉사였습니다. 주님 사랑과 동족 사랑에서 우러나

온 순수한 봉사였습니다. 자기 과시와 자기 명성을 위한 꾀와리 소리가 요란한 선전시대에 이쁨도 소리도 없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소유와 자신을 모두 허비한 사랑과 봉사의 목회자를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에게서 발견합니다. 여섯째로, 목회자 한경직은 “화평”을 추구한 “협력”의 목회자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 일을 보면서 제일 애쓰는 일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그것은 “화평”이라고 대답한 일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바탕으로 화평을 이루어간 “화평”과 “협력”의 목회자였습니다. 최창근 장로는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의 첫째 특징을 “화평”의 목회라고 지적했고 이종성 박사는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의 특징 세 가지 중의 하나가 “협력”의 목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화평”의 목회는 한경직 목사의 교회관에서 비롯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가 분열될 수 없는 한 교회의 통일성과 공동성이 파괴될 수 없다. 사업보다도 인화가 더 중요하다. 다량의 극치 속에서도 조화를 찾아 총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다.”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의 목회뿐 아니라 한국 장로교회와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목회에 있어서도 화평과 협력과 연합을 추구해나갔습니다. 한송홍 교수는 한경직 목사님의 포용의 자세를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그는 배타주의를 주장하는 옹졸한 사람도 분리주의를 역설하는 과격한 사람도 아니다. 그는 분명히 그의 신학사상이 복음주의적 신앙과 에큐메니칼 신학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그와 신학사상이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한 형제로 포용하는 포괄적인 사상의 주인공이다.” 한경직 목사님은 한 길을 더 나아가 교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조화”와 “통일”을 추구했습니다. 즉 한국교회 안에서 복음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을 폭 넓게 펴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손을 잡고 모두를 협력하며 격려했습니다. “비록 교파는 다르지만 교파를 초월해서 온 교회가 다 같이 당면하는 일 즉 국가 민족 사회를 위한 봉사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서로 협력할 줄 알아야 한

다.” 그는 기독교연합회 회장(1955-1956),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총재(1982-1984),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주역 등으로 한국교회의 초 교과적 연합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교회 100주년을 맞을 때 모든 교회, 모든 단체를 하나로 통합, 결집시키는 일을 한 것은 교회사적으로 괄목할만한 일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화평의 목회관은 그의 정치관과 통일관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교분리의 입장을 표방하면서도 교회는 정치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그 방법은 투쟁적 방식이 아닌 사랑과 평화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또한 남북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통일도 무력통일이 아닌 자유 통일이요 평화 통일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화평의 목회가 그의 성서적인 교회관에서 비롯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예수님 닮은 온유와 겸손의 인격을 지니지 못했다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온유와 겸손을 몸 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모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민족을 동서 남북으로 갈라놓은 갈등과 분열이 최고조에 달한 이 시대에 우리는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하나로 치유해간 그리고 민족의 평화 통일을 염원한 화평과 박애의 목회자를 한경직 목사님에게서 발견합니다.

일곱째로, 목회자 한경직은 민족과 세계를 품은 “역사의식”의 목회자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역사의식과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산 분이었습니다. 아마 민족과 세계를 바라보는 “역사의식”은 오산학교의 이승훈 선생과 조만식 선생으로부터 배웠을 것이고 후에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폭 넓게 연마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일대학 박사과정에서 교회사를 연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귀국 후 조선신학교에서 교회사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몸으로 살아가면서 역사의식을 스스로 터득하며 역사의식을 가지고 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남다르게 폭 넓은 사고와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은 그리고 세계를 그의 활동 무대로 삼은 것은 그의 비범한 인격과 함께 그가 터득한 역사의식과 역사적 안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는 다양성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는 역사적 안목의 비결을 지녔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 한국 나라와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한 분이었지만 동시에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넘어서서 세계를 품고 사랑하며 봉사

한 분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57년 3월 3일에 행한 “성서적 애국심”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도 애국자입니다”라고 말하여 나라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성서적 애국심이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성서적 애국심은 혹 우리 사회에서 가끔 듣는 민족지상주의나 국가지상주의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서가 가르치는 애국심은 민족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기주의와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 인류의 연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만민의 아버지시오, 사해는 다 동포이며 형제입니다. 연대성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연한 것같이 우리 사람은 각자 나뉘어 있지 않고 다 서로 연결되어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연히 사회를 이루어 살게 되어 있는 까닭에 사회의 한 분자가 되었고 사회의 한 분자가 된 다음에는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실에 대하여 공동적인 책임을 자연히 지게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신앙을 자기 개인의 울타리 안에 가두거나 목회를 개 교회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지 않고 이웃과 사회와 민족과 세계의 울타리로 뻗어나가게 했습니다. 그는 폭 넓은 시각을 가지고 폭 넓은 연계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삶과 활동의 범위는 넓고 다양했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은 전도와 교육과 봉사는 물론 사회복지, 치안유지, 정당활동, UN 활동, 세계선교와 구호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미쳤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과 한국 교회가 지니지 못했던 역사의식과 역사적 안목을 지니고 폭 넓게 살았습니다. 끝으로, 인간 한경직과 목회자 한경직은 삶이 깨닫한 “청빈”의 사람이요 “청빈”의 목회자였습니다. 인간 한경직과 목회자 한경직의 삶과 사역의 면모를 살펴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었고 성 프랜시스처럼 사신 분이었고 성 프랜시스도 “나는 가난이란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선언하고 친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한경직 목사님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평생 깨끗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82년 8월 11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갈 인생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본인의 말 그대로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 깨끗한 청빈의 사람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2000년 4월 19일 오후 1시15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세상은 임을 모아 그를 가리켜 “청빈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그를 높이 기렸습니다. 명예욕과 물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부끄러운 오늘의 시대가 가장 보고 싶어 한 사람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빈과 봉사의 사람 장거리 박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작은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아쉬워했듯이 청빈과 봉사의 사람 한경직 목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작은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모두들 아쉬워 했습니다. “신앙계”는 한경직 목사님을 기리며 그를 가리켜 “3무의 삶”을 실천한 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통장, 집, 재산이 없는 3무의 삶을 실천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빈”이 그분의 삶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분명히 “한국교회에 내리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손봉호 교수)이었고 “20세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정진경 목사)였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한경직 목사님을 가리켜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모하는 분”이라고 부르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시인 고훈 목사는 한경직 목사님을 기리며 “가난한 목자, 사랑의 목자, 작은 예수”라고 목이 매어 불렀습니다. 우리는 인간 한경직과 목회자 한경직의 면모를 살피고 나서 치절한 고뇌를 느낍니다. 절망적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위대한 참 목자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고 애찬하고 흠모하는 것이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진실도 없고 겸손도 없고 청빈도 없고 참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숨김도 없고 사랑도 없는 나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치절한 고뇌와 절망적인 부끄러움과 깊은 탄식을 느낄 뿐입니다. 단지, 이런 분을 이 땅에 아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부끄러운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들과 같은 고귀한 신앙의 선배님들의 제물인 삶과 죽을 때문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끄러운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명사와 함께 읽는 철학동화-일화하는 마이

#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할아버지의 코트**

글: 김기림 | 그림: 이종석 | 출판: 이화출판사

**스콜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낡고 해쳐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급해, 낡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런, 여전히 쓸 만해."

미친고, 오래되고, 불쌍했던 것도 소용이 다뤄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기르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마스터 이화씨

한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문의 02-734-7501 **이마주**